

보도 일시	2022. 10. 13.(목) 11:00 10. 14.(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13.(목) 09:00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51)
		담당자	기술서기관 이상준 (044-201-2362)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

- 국민과 소통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10.17. ~ 11.4.)」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30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18년 대비 약 22.6% 감축(축산: 전체 감축량의 56.1%)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하였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 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 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 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 바이오매스를 350°C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음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 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 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 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숯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옥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미래 축산환경 주간」 운영계획(안)



1 추진배경

-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사 관리 및 가축분뇨 新처리 방식 집중 홍보
 - 환경친화 축산업 대전환을 위한 2대 아젠다(탄소중립, 스마트축산)의 국민 소통 강화로 축산업 가치 제고

2 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22. 10. 17 ~ 11. 4(3주간)
- 주요행사 : 2대 아젠다*와 연계한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 * 탄소중립(바이오차, 에너지효율화), 스마트축산(SK, 신재생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가스화))
 - * 학술대회 : 세계바이오차학회(서울), 축산환경학회(수원) 등
- 운영방안 : 정부·지자체·관련협회·학회 등과 연계, 우수 현장사례 홍보, 전문가 기고 등 추진

3 주요 행사계획(안)

구분	주요 행사
탄소중립	▶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 및 깔짚 연구 상황 * 10.18(화) / 농협안성목장 / 농식품부, 농협, 농진청, 경기도 등 ▶ 세계 바이오차 학회(10.24~10.27, 서울) * 10.25(화) / 서울 프라자호텔 / 만찬세션 / 농식품부, 학계, 기업 등 ▶ 축산환경학회(10.27, 수원) ▶ 우분 고체연료 제철소 시험연소식 * 11.2(수, 잠정) / 현대제철당진제철소 / 농식품부, 현대제철, 농협, 당진시 등
스마트 축산	▶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 10.26(수) /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 / 농식품부, SK인천석화, 농협, 전북도 등 ▶ 스마트축산 현장방문 및 기획취재(한돈, 낙농 등) * 10.31 주간 / 흥성군(성우농장) 등